

‘학폭 극단적 선택’ 유족 울부짖음에 국가가 답했다

국민청원 20만 동의 41일만에...교육부 차관, 학폭 재발방지·법 제정·피해자 회복 지원 약속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다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광주일보 7월 5일 6면>의 유족들의 울부짖음에 국가가 응답했다.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 41일 만이다.

정부는 A군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학교폭력 재발방지와 관련법 개정, 피해자 회복 등에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원답변 260호’가 올라왔다. 승진 A군의 유족들이 지난 7월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으로, 정중철 교육부 차관이 정부를 대표해 답변했다.

정 차관은 “답변에 앞서 삶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

한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미리 마치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갔다.

청원 답변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학교에서는 7월 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어 8월 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2명)·전학(2명)·출석정지(1명)·사회봉사(1명)·교내봉사(4명) 등의 조치를 결정했으며,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2명을 구속했다.

정 차관은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 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대책도 내놓았다.

특히 이날 내놓은 대책들은 지난 6월 A군의 사망 이후 광주일보가 제시한 대책들이 대폭 담겼다.

‘일회성 생생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체험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보도 <광주일보 7월 6일 6면>, 취지가 무색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시급 <광주일보 6월 6일 6면>, 학폭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강화 절실 <광주일보 7월 12일 6면>,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광주일보 7월 15일 6면> 등이다.

우선 정부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것과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포레스트 등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해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A군 유족은 “아직까지도 아이가 세상을 떠난 현실이 꿈인가 싶다. 그나마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조사며 구속 수사 등이 진행되는 데 힘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비 사이로 가을이 내린다 초가을비가 내린 6일 오후 광주시청앞 화단에 핀 안젤로니아 꽃길 사이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2022학년 대입 수능 지원 늘어

지난해보다 650여명...수도권 정식 확대 등 영향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광주지역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지원자는 1만7034명으로 지난해 대비 656명(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재학생은 전년 대비 544명 증가한 1만2977명(76.2%), 졸업생은 135명 증가한 3593명(21.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3명 감소한 464명(2.7%)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능 지원자의 증가는 서울 16개 대학 정식 확대, 약대 학부생 모집, 수도권 지역균형선발 교과 전형 실시에 따른 수능 최저등급 필요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상황에서 재학생 수능 지원자가 증가해 그 배경이 주목

된다.

광주지역 수능 지원자의 선택 영역별 지원 현황은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 1만2563명(73.8%), ‘언어와 매체’ 4436명(26%), 미선택 35명(0.2%)이다.

수학(올해부터 선택과목 도입)은 ‘확률과 통계’ 8510명(50%), ‘미적분’ 6548명(38.4%), ‘기하’ 1554명(9.1%), 미선택 422명(2.5%)이다.

영어(절대평가)는 1만6921명(99.3%), 미선택 113명(0.7%)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전국 수능 지원자는 50만9821명으로 지난해 49만3434명보다 1만6387명(3.3%) 증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추석 별초시 벌 쏘임 주의를

여수에서 벌초하던 70대가 말벌에 쏘여 숨지면서 추석 앞두고 벌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시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벌쏘임 사고는 64명으로 8월과 9월에만 23명(36%)이 발생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47명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풀숲이나 무덤가 주변 땅속에 벌이 있는지 살피고, 만약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옆도리지 말고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을 제거 후 물로 씻거나 얼음찜질을 하고, 호흡곤란과 근육경련 등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최권일 기자 cki@

‘오월어머니상’ 공모 24일까지 후보지 모집

(사)오월어머니집은 ‘제15회 오월어머니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6일 오월어머니집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숨은 시민을 찾아 노고와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오월어머니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오월어머니상 후보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희생당했거나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5·18민주유공자와 친족은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4일 까지 이메일로 가능하다.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3일 시상한다. 기존에는 개관 기념일인 5월 8일에 시상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수상자에게는 개인 100만 원, 단체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펜트하우스’ 학동 참사 장면, 실수로 보기 어려워”

광주시, 제작 경위 조사·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광주시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방송에 사용한 것과 관련, 제작진의 사과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6일 김용만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 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아픔과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며 “희생자 유족, 부상자 가족뿐 아니라 광주시민, 많은 국민에게도 깊은 트라우마

로 남은 현재 진행형 재난”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붕괴사고 현장 영상을 드라마에서 사용한 것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광주시민을 더 힘들게 하는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다른 장면에서 포항 지진 이재민 뉴스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단순한 방송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드라마 제작진은 경위를 상세히

조사한 후 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펜트하우스 제작진은 지난 4일 입장을 내고 “3일 방송 중 일부에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및 포항 지진 피해 뉴스 화면 등 부적절한 장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일로 인해 아픔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운 CITY i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십니다.

모집부서 및 자격요건(상시모집)				
구분	모집(전공)부서	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지 비고
신입·경력	건축직(공무, 공사)	○명	신입 및 경력	본사 및 현장 정규직
	토목직(공무, 공사)	○명		
	조경직(공무, 공사)	○명	•신입 : 관련학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졸업예정자 포함)	
	안전관리직(본사, 현장)	○명	•경력 : 관련학과 전공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건축(공동주택 경력자 우대)	
	전기, 소방	○명		
	기계설비	○명		
	주택사업	○명	•신입 : 학력무관	
분양사업	○명	•경력 : 공동주택 A/S, C/S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 2차 : 면접(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 력 서 : 사진, 우측상단엔 응시분야 기재, 희망연봉 및 긴급연락처 명기
 - 자기소개서 (주요경력 위주로)
 - 기술인협회 발행경력증명서
 - 해당 기술자격증 사본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9월 1일 ~ 9월 30일
 - 접수방법 : E-mail 접수(gowoon205@nate.com)
 - 전 화 : 062-225-9300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당사규정 및 실무 경력에 따라 협의

